

# 의사와 다른 국민 목소리... 10명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서 설문 조사 결과 발표 85.6%는 “진료거부·집단 휴업 지지하지 않는다” “증원에 대한 결정권 국민에 있다” 응답 51.5%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 89%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도

89.3%로 집계됐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2.7%였다. 한 달 새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증원 규모에 관한 물음에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7.7%를 차지했다. 또 “2000명 이상”을 택한 응답도 28.7%나 됐다. 응답자 가운데 16%는 현행 유지를 택했다. 아울러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

율은 85.6%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까지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다. 증원에 대한 결정권이 일반 국민에게 있다는 응답은 51.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35.8%, 의협 10.5%로 나타났다. 나선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똥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한편, 의협은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



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후 대안문에서 서울역 서선욱 기자



**독성·여의도·잠원 한강시민공원 눈썰매장 개장** 전국이 한파로 공공 얼어붙은 17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 한강시민공원에 서 눈썰매장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한강시민공원 눈썰매장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과 잠원 한강공원, 독성 한강공원에 설치 운영된다.

##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이번주 결론...파장 예고

### 검찰총장 때 채널A 사건 정직 2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환)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검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검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구본선 전 광주주검장, 이정화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대검 차장이던 구 전 고검장은 채널A 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검찰을 담당했던 이 부장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검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양정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에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다. 채널A 사건의 상대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김수권기자

## 순천 폐가에서 현 이불에 덮여 숨져 있는 60대 남성 발견

### 경찰, 20대 절도 용의자 조사중 숨진 남성 휴대폰 소지 의심

순천의 한 폐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순천시 옥천동 폐가에서 A씨가 현 이불에 덮여 숨져 있었다.

검시 결과 숨진 지 며칠 된 것으로 추정됐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20대 절도 용의자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갖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20대 남성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A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의 물건을 훔쳐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승호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